

# 종합편성채널의 뉴스보도 시청률과 보수 정당의 선거득표율 간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Programming TV's News Ratings and the Vote Shares of Conservative Parties

이승엽\*, 이상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Seung Yeop Lee(yeopcp@kca.kr)\*, Sang Woo Lee(leesw726@yonsei.ac.kr)\*\*

### 요약

텔레비전방송은 시청자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나 의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2011년 종합편성채널이 개국된 이후, 이들 중 일부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보수 정당의 선거득표율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든 종합편성채널에서, 시청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 중 TV조선, 채널A, JTBC에서, 메인뉴스 시청률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더 증가하였다. 이는 TV조선, 채널A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들 채널이 보수적으로 편향된 경향을 보여 이를 시청한 시청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JTBC의 경우에는 선거 막판에 새누리당이 제기한 여러가지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심층보도를 강화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중심어 : 미디어 편향성 | 종합편성채널 | 폭스효과 | 시청률 | 선거득표율 |

### Abstract

Television viewing affects viewers' attitudes and opinions on their political issues. Since the beginning of General Programming TV services in 2011, they are criticized of their politically biased programmi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eneral Programming TV on voters' behavior, we analyzed whether or not there is a change in the voting behavior of the conservative parties among the areas with high and low TV ratings of general programming TV. Based on the result of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2012, we could not find any difference in voting behavior on the Saenuri party among the areas with high and low ratings of general programming TV channels. However, in the 6th provincial election in June 2014, while the voting shares of the Saenuri party were higher in the areas with high ratings of TV Chosun, Channel A, and JTBC than in those areas with low ratings.

■ keyword : Media Bias | General Programming TV | Fox Effect | TV Ratings | Electoral Voting Shares |

## I. 서론

2011년 12월 1일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TV 조선, 채널A, JTBC, MBN이 개국하였다. 종편이 개국한 이래로, 이들 중 일부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1][2]. 윤홍근[3]은 TV조선, 채널A와 같은 일부 종편들이 시사프로그램에 집중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보수편향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원희영·윤석민[4], 이승엽·양기문·이상우[5]도 선거기간 동안에 일부 종편의 뉴스보도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도 종편의 정파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6].

종편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이러한 편향성은 종편을 시청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7-9], 그 결과로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10]. 그러나 국내에서 종편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이 실제 시청자들이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학술적으로 검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종편을 시청하는 것이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국 각 지역별로 종편의 시청률과 그 지역에서의 보수정당 득표를 변화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종편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실제로 보수정당의 득표율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종편 시청과 투표 행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채널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실제 종편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는지를 밝힌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종편의 뉴스보도나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나[1-5], 실제로 이러한 편향성이 시청자들의 정치적 행위(투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종편 시청률과 정당의 득표율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종편 시청이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종편을 시청하는 것이 실제 그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종편에게 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가 지금보다도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편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비록 종편 시청과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 행위 간에 정밀한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출범한 종편의 정파성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 또는 행위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방송채널의 정치적 편향성

전술한 바와 같이 방송채널은 이를 보는 이용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8][9][11], 국내외에서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방송채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연구는 방송채널의 방송프로그램(뉴스보도 또는 선거방송) 자체의 정치적 편향성을 측정하는 연구와,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정치적 성향 또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특정 방송채널의 시청률이 정당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 1.1 방송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방송프로그램 자체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 정치 이슈들에 대한 각 방송사들의 뉴스보도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선·총선과 같이 중요한 선거에서 나타나는 각 방송사들의 뉴스보도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최선규·유수정·양성은[12]은 종편이 도입되기 이전에 국내 지상파방송채널과 신문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교하면서, 북한의 2차 핵실험,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발표, 용산참사 검찰수사 결과 발표 등 10개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뉴스보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지상파 방송채널보다는 신문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조은영·유세경[13]은 2013년 12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철도파업사건에 대해 지상파방송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서 나타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저자들은 JTBC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 지상파방송채널들이 노조 측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평상시에 방송되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뉴스보도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편향성 뿐만 아니라 선거(대선, 총선) 때 각 방송채널에서 보도하는 뉴스보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분석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구교태[14]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각 지상파방송채널의 선거방송보도를 분석하면서 지상파방송채널들이 여당 후보에 대한 보도시간과 녹취, 인터뷰 시간을 더 길게 하였으며, 일부 채널에서 BBK 관련 사건과 같은 갈등적인 이슈에 대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뷰만을 편성하는 등 극단적으로 편향된 보도 행태를 보였다고 하였다. 권혁남[15]은 15대(1997년), 16대(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상파방송채널의 선거 관련 뉴스보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줄어들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당 편향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노동렬[16]은 19대 총선에서 5대 중앙일간지의 보도행태를 분석하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동일한 정당의 선거 운동을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내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하였다.

해외에서도 방송채널 뉴스보도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Groseclose & Milyo[17]는 미국 언론사의 뉴스보도를 분석하면서 평균적으로 진보 편향되어 있다고 하였다. Fico et al.[18]은 2004년 미국 대선에서 지상파방송채널 3사(ABC, CBS, NBC)와 케이블방송채널 3사(CNN, FOX, MSNBC)의 뉴스보도를 비교하면서, 지상파방송채널이 케이블방송채널보다 더 정치적으로 균형적인 뉴스보도를 하였다고 하였다. Zeldes et al.[9]은 2000년과 2004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지상파방송채널의 정치적 편향성을 분석하면서, CBS가 민주당 후보에 편향적인 뉴스보도를 하였으며 이것은 2004년 대선에서 더 두드러졌다고 하였다. Diddi et al.[8]은 2000년, 2004년, 2008년 미국 대선에서의 지상파방송채널을 분석하면서, 2000년과 2004

년의 대선은 비교적 균형적이었으나, 2008년의 대선에서는 전체적으로 공화당에 편향된 뉴스가 보도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을 통해, 국내의 경우 방송채널들이 전반적으로 보수 편향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보수 편향적인 방송채널과 진보 편향적인 방송채널이 혼재되어 있으며 방송채널이 보수 또는 진보 편향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도 시기에 따라 매우 동태적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 1.2 방송프로그램이 유권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선거와 관련된 뉴스보도나 선거토론편송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수행되었다[19-23]. 구교태·김관규·이준웅[20]은 TV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선거 이슈, 후보자 이미지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나은경·이강형·김현석[21]은 미디어 이용이 현재의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한 정서적·인지적 판단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대통령(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반현·최원석·신성혜[22]는 TV뉴스의 선거 의제 설정이 선거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지 후보나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에 그것이 선거와 관련된 TV토론회라고 할지라도, 방송프로그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김연중[23]은 17대 대선 합동선거방송토론회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후보자들의 다양한 설득방법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에 있어 일회적인 TV토론회보다는 기존의 축적된 정보에 더욱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 1.3 방송채널 시청률이 정당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국내에서, 특정 방송채널 시청이 유권자의 투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정 방송채널 시청이 유권자의 투표에 미치는 영향, 즉 방송채널 시청률이 정당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외 연구로는 Della Vigna & Kaplan[10]이 있다. 이 연구에

서는 1996년에 개국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적 성향의 방송채널인 Fox News가 미국의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면서, Fox News 채널 시청률 1% 증가가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득표율을 0.4%p에서 0.7%p 가량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그리고 Fox News 채널은 대선에서 공화당 득표율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선 투표율을 올리는 데도 기여하였으며, 이후에 상원의원 선거에서의 공화당 득표율을 올리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 2. 종편의 정치적 편향성

개국 이후 시청률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일부 종편들은 시청률 확보를 위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보도를 하게 된다[2].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두 선거를 치르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국내 일각에서는 일부 종편의 보수적 보도 행태를 미국의 '폭스 효과' [10]에 비유하여 '종편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였다[2]. 그러나 이와 같이 종편의 보수적 성향과 정파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나 아직 이들이 시청자들의 정치적 성향 또는 투표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학술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종편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수행되기 시작하였다[3][13]. 윤홍근[3]은 4개의 종편을 비교하면서 TV조선과 채널A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도에 있어 보수적 편향성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보수적 편향성에 대한 평가가 실증적인 검증이 아닌 채널A의 5.18 북한군 개입설 보도, 박종진의 궤도난마에서의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막말사건 등 단편적인 사건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조은영·유세경[13]은 철도노조파업 이슈에 대한 지상파 방송채널의 보도와 종편 채널의 보도를 분석하면서, JTBC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편 채널에서 파업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였으며, 취재원 유형에 있어서도 노조측보다는 코레일측 인사가 더 많아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원희영·윤석민[4]은 2012년 제18대 대선 기간 동안

종편 4개사 메인뉴스의 보도 공정성을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에서 각각 측정하였는데, TV조선과 채널A가 정량적 및 정성적 측면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편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엽·양기문·이상우[5]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의 4개 종편, 3개 지상파방송채널의 메인뉴스의 정치적 편향성을 물리적, 보도주제, 보도논조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방송채널에서 물리적 편향성은 없었으며, 보도주제 측면에서 MBC, SBS가 새누리당에 편향적이었다. 그리고 보도논조의 측면에서는 MBC와 TV조선이 새누리당에 대해 편향적이었으며, JTBC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편향적이었다. 요컨대 우리나라 종편 중에 JTBC는 진보 편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그 외의 종편들은 보수 편향적인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종편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종편의 정치적 편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그러한 편향성이 실제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편의 정치적 편향성이 실제로 시청자들의 선거 결과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서 살펴본 Della Vigna & Kaplan[10]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적 보도 성향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일부 종편도[2][3]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의 선거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편 중에 보수적 보도 성향을 보이는 TV조선, 채널A, MBN의 시청률이 선거에서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의 득표율 증가와 양(+)적인 관계에 있고, 진보적 보도 성향을 보이는 JTBC의 시청률은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의 득표율 증가와 음(-)적인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았다. 종편이 출범한 이후에 실시된 전국 단위의 선거는 2012년 12월에 있었던 제18대 대선, 2014년 6월에 있었던 제6회 지방선거를 들 수 있다. 바로 전 선거인 제17대 대선은 2007년 12월에, 제5회 지방선거는 2010년 6월에 있었으며 이 시기는 종편이 출범하기 이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편이 출범한 이후 이들의 시청률과 대선에서의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제18대 대선 득표율 - 제17대 대선 득표율), 지방선거에서의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제6회 지방선거 득표율 -

제5회 지방선거 득표율)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즉 TV조선, 채널A, MBN의 시청률이 높은 지역은 시청률이 낮은 지역보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종편 출범 이전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보았고, JTBC의 시청률이 높은 지역은 시청률이 낮은 지역보다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종편 출범 이전보다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이 될 각 종편의 시청률은 메인뉴스의 시청률로 하였다. 저녁 20시~22시에 방송하는 메인뉴스는 각 사가 편성하는 뉴스프로그램 중 가장 공을 들이고, 자사의 보도 원칙 및 논조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특징이 있으며[4] 뉴스프로그램 중 시청률도 가장 높아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TV조선의 메인뉴스 시청률이 높은 지역은 시청률이 낮은 지역보다 새누리당 득표율이 더 증가하였을 것이다.

가설 2 : 채널A의 메인뉴스 시청률이 높은 지역은 시청률이 낮은 지역보다 새누리당 득표율이 더 증가하였을 것이다.

가설 3 : MBN의 메인뉴스 시청률이 높은 지역은 시청률이 낮은 지역보다 새누리당 득표율이 더 증가하였을 것이다.

가설 4 : JTBC의 메인뉴스 시청률이 높은 지역은 시청률이 낮은 지역보다 새누리당 득표율이 더 감소하였을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분석 방법

가설의 검증을 위해, 각 종편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득표율은 방송채널의 시청률 뿐만 아니라, 인구수, 학력(대졸 이상 비율), 성별(남성의 비율), 연령(50대 이상의 비율), 취업률, 실업률, 기혼율, 평균 소득, 도시 여부, 지역특성(영남/호남 여부), 기존 선거에서의 새누리당 득

표율, 후보자수, 다 방송채널의 시청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요인들을 공변인(covariates)으로 설정하여 통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각 종편의 시청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종편 시청률에 따른 지역구분은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중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지역을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각 종편별로 시청률이 높은 순서대로 상위 7개 지역은 고시청률지역, 그 다음 7개 지역은 저시청률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는 제18대 대선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에서 제17대 대선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을 뺀 값과, 제6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득표율에서 제5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득표율을 뺀 값으로 하였다.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시·도의 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국민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시·도지사선거에서의 득표율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 2. 자료 수집

가설의 검증을 위해, 각 종편 메인뉴스의 시청률은 AGB닐슨에서 측정한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 시기의 시청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메인뉴스는 TV조선 <뉴스쇼 판>, 채널A <종합뉴스>, MBN <MBN 뉴스8>, JTBC <뉴스9>으로 하였다. 수집되는 각 종편 메인뉴스의 시청률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확정되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 하루 전일까지(제18대 대통령선거 : 2012년 11월 25일~12월 18일, 제6회 지방선

1)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이들 선거와 함께 교육의원선거, 교육감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다.

거 : 2014년 5월 15일~6월 3일)의 평균 시청률로 측정하였다.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6회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의 득표율, 후보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득표율은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새누리당에 투표한 사람의 비율로 하였다. 그리고 득표율을 측정할 지역단위는 전국의 시·군·구로 설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는 전국을 16개의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분류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시·군·구를 분류하였으며, 각 시·군·구별 정당 득표수와 득표율을 공개하였다. 선거통계시스템상에서 제6회 지방선거결과에 분류한 전국의 시·군·구는 총 234개였다. 그러나 각 종편의 시청률이 새누리당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종편 시청률이 측정되지 않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의 득표율을 측정해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시·군·구는 189개이다.

공분산분석(ANCOVA)에서 통제해야 할 변인으로 인구수, 학력(대학 졸업자의 비율), 성별(남성의 비율), 연령(50대 이상의 비율), 취업률, 실업률, 기혼율, 평균 소득, 도시 구분, 지역특성(영남/호남 구분)과 같은 변인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상에 각 시·군·구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중 인구수, 학력, 성별, 연령, 기혼율은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취업률, 실업률, 평균 소득은 2012년 12월 통계청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통제해야 할 변인 중 기존 선거에서 새누리당 득표율은 제17대 대통령선거, 제5회 지방선거의 득표율로 하였다. 통제해야 할 타 방송채널의 시청률은, 기존 연구에서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높다고 분석된[19][20][23] 지상파 방송채널(KBS1, MBC, SBS)의 시청률로 하였다. 지상파 방송채널의 시청률도 종편 시청률과 같이, AGB닐슨에서 측정한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 시기의 평균 시청률을 활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기초 분석

표 1. 선거기간 각 종편 메인뉴스 평균 시청률

1)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년 11월 25일 ~ 12월 18일

구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채널A	MBN	JTBC
서울	2,064 (5)	1,549 (10)	1,219 (10)	1,017 (10)
부산	2,279 (3)	2,145 (4)	1,510 (6)	1,464 (6)
광주	2,061 (6)	0,758 (14)	1,475 (7)	1,476 (3)
대전	1,937 (7)	1,550 (9)	1,098 (13)	1,515 (2)
대구	3,257 (1)	2,321 (3)	1,966 (2)	1,895 (1)
울산	1,513 (11)	0,991 (13)	1,115 (12)	0,857 (12)
강원	1,895 (8)	1,885 (6)	1,511 (5)	1,476 (3)
경남	1,310 (12)	2,023 (5)	1,682 (3)	1,125 (8)
경북	2,092 (4)	2,492 (1)	2,156 (5)	1,470 (5)
전남	0,889 (14)	1,072 (12)	1,047 (14)	0,903 (11)
전북	1,066 (13)	1,691 (8)	1,378 (8)	0,820 (13)
충남	1,867 (9)	1,216 (11)	1,150 (11)	0,587 (14)
충북	1,644 (10)	1,803 (7)	1,526 (4)	1,072 (9)
제주	2,338 (2)	2,377 (2)	1,372 (9)	1,464 (6)

주. 괄호는 시청률 순위

2) 제6회 지방선거: 2014년 5월 15일 ~ 6월 3일

구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채널A	MBN	JTBC
서울	2,539 (9)	1,735 (6)	1,553 (13)	3,452 (9)
부산	3,134 (5)	2,303 (3)	2,304 (7)	3,643 (8)
광주	2,206 (11)	1,660 (9)	2,533 (3)	6,262 (1)
대전	3,068 (6)	1,554 (12)	2,023 (11)	3,937 (7)
대구	3,305 (4)	1,542 (13)	2,415 (5)	2,244 (13)
울산	2,108 (12)	1,080 (14)	1,526 (14)	2,869 (10)
강원	2,709 (7)	1,709 (8)	2,198 (8)	4,513 (5)
경남	3,353 (2)	2,155 (4)	2,467 (4)	4,080 (6)
경북	1,980 (13)	1,635 (10)	1,666 (12)	1,121 (14)
전남	2,532 (10)	2,328 (2)	2,150 (9)	5,689 (2)
전북	1,798 (14)	1,580 (11)	2,138 (10)	5,608 (3)
충남	3,308 (3)	1,730 (7)	2,383 (6)	2,668 (11)
충북	2,654 (8)	1,949 (5)	2,823 (2)	2,552 (12)
제주	3,362 (1)	2,921 (1)	3,119 (1)	4,929 (4)

주. 괄호는 시청률 순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기간 동안 각 종편 메인뉴스의 평균 시청률은 [표 1]과 같다. 괄호 안은 각 종편별로 평균 시청률이 높은 순위에 따라 지역에 순위를 매긴 것이다. 종편 메인뉴스의 시청률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기간보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기간에 비교적 더 높았다.

[표 2]는 각 지역별 시청률 순위를 바탕으로 지역을 고시청률지역과 저시청률지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고시청률지역이 해당 종편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고, 저시청률지역은 해당 종편의 시청률이 낮은 지역이다.

표 2. 종편별 시청률 순위에 따른 지역 분류

1)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년 11월 25일 ~ 12월 18일

구분	고시청률지역	저시청률지역
TV조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경북, 제주 (89)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전북, 충북, 충북 (100)
채널A	부산, 대구, 강원, 경남, 경북, 충북, 제주 (99)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충남 (90)
MBN	부산, 광주, 대구, 강원, 경남, 경북, 충북 (98)	서울,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제주 (91)
JTBC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강원, 경북, 제주 (92)	서울, 울산,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97)

주. 괄호는 집단 내 표본수(사군구)

2) 제6회 지방선거: 2014년 5월 15일 ~ 6월 3일

구분	고시청률지역	저시청률지역
TV조선	부산, 대전, 대구, 강원, 경남, 충남, 제주 (80)	서울, 광주, 울산, 경북, 전남, 전북, 충북 (109)
채널A	서울, 부산, 경남, 전남, 충남, 충북, 제주 (109)	광주, 대전, 대구, 울산, 강원, 경북, 전북 (80)
MBN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충남, 충북, 제주 (75)	서울, 대전, 울산, 강원, 경북, 전남, 전북 (114)
JTBC	광주, 대전, 강원, 경남, 전남, 전북, 제주 (83)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북, 충남, 충북 (106)

주. 괄호는 집단 내 표본수(사군구)

## 2. 가설 검증

각 종편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새누리당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종편 메인뉴스 시청률로 분류한 집단(지역)들 간에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Leven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p)이 .050 이상이었어서 두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든 종편의 수정모형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모든 종편에서 메인뉴스 고시청지역과 저시청지역 간에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표 3.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의 차이검증 (ANCOVA 결과)

1)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년 11월 25일 ~ 12월 18일

(단위: %p)

구분	수정모형 F	고시청률 지역	저시청률 지역	F (유의확률)
		M(SD)	M(SD)	
TV조선	64.773***	.076 (.007)	.087 (.006)	1.211 (p).050)
채널A	64.302***	.084 (.006)	.080 (.007)	.132 (p).050)
MBN	64.435***	.085 (.005)	.079 (.006)	.437 (p).050)
JTBC	64.327***	.076 (.005)	.086 (.004)	1.761 (p).050)

$\alpha .05^*$ ,  $\alpha .01^{**}$ ,  $\alpha .005^{***}$

2) 제6회 지방선거: 2014년 5월 15일 ~ 6월 3일

(단위: %p)

구분	수정모형 F	고시청률 지역	저시청률 지역	F (유의확률)
		M(SD)	M(SD)	
TV조선	27.999***	.066 (.009)	-.005 (.007)	27.295 (p<.005)
채널A	26.298***	.047 (.007)	-.004 (.008)	18.825 (p<.005)
MBN	22.875***	.014 (.010)	.032 (.007)	1.780 (p).050)
JTBC	38.912***	.116 (.011)	-.046 (.009)	81.631 (p<.005)

$\alpha .05^*$ ,  $\alpha .01^{**}$ ,  $\alpha .005^{***}$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모든 종편의 수정모형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TV조선 메인뉴스, 채널A 메인뉴스, JTBC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새누리당 득표율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왔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때의 종편에 대해서는 가설이 모두 기각되었으며,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의 종편에 대해서는 가설1, 가설2가 채택되었고, 가설3, 가설4는 기각되었다. 특히 진보적인 성향의 종편으로 인식되고 있는 JTBC에서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새누리당 득표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와 가설4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1년 12월 처음 개국한 종편 채널들의

시청률이 실제 선거에서 보수 정당(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종편 중에 TV조선, 채널A, MBN은 보수적으로, JTBC는 진보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으므로 [2-5][12], 실제 그러한 채널의 편향성이 채널을 시청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종편이 도입된 초기인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종편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새누리당 후보 득표율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정당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공변인들을 통제하고 나면, 이들 종편이 실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TV조선, 채널A, JTBC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더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당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공변인들을 통제하고 나면, MBN을 제외한 종편 메인뉴스 시청률은 전반적으로 보수 후보의 득표율 증가와 양(+)적인 관계가 있었다. TV조선과 채널A는 보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채널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는 일견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방송의 편향성은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7-9]. 그러나 JTBC의 결과는 예상과 다른 결과였다. JTBC는 2013년 5월 손석희 사장의 취임 이후 다소 진보적인 성향의 뉴스보도를 방송하고 있다[5][13]. 특히 제6회 지방선거가 있기 두 달 전인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에 대해 JTBC의 <뉴스9>에서는 정부의 부실 대응과 선박 허가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sup>2)</sup>.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여당에 대한 지지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므로[22][25][26] JTBC의 이러한 보도 경향이 제6회 지방선거에서 새누

리당의 득표율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JTBC <뉴스9>의 이러한 보도 경향에도 오히려 이를 많이 시청하는 지역에서 적게 시청하는 지역보다 새누리당 득표율이 더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새누리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유난히 심했던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야당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서울시 농약급식 논란, 부인의 성형잠적 의혹, 서울시 재개발 실적 논란 등의 공세를 하였으며 이는 선거일자가 가까워 오면서 더욱 심해졌다[5]. JTBC의 <뉴스9>은 사실(fact) 규명을 위해 새누리당이 제기한 주요 의혹에 대해 심층적인 보도를 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시청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종편은 출범 초기인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종편의 시청률이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와 아무런 유의한 관계를 갖지 못하였으나, 2년 후인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와 유의한 관계를 갖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초기에 종편이 보수 편향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냈지만[25][26], 점차 뉴스보도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시청률도 증가하고 유권자들의 정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4. 종편채널 고시청률지역과 저시청률지역 간 보수정당 득표율 변화 비교 (연구결과 및 시사점)

종편 채널	제18대 대선	제6회 지선	시시점 (제6회 지선)
TV 조선	고시청률지역과 저시청률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고시청률지역의 득표율 증가 > 저시청률지역의 득표율 증가	보수편향 채널의 시청률과 보수정당 득표율 간에 양(+)적인 관계
채널A	고시청률지역과 저시청률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고시청률지역의 득표율 증가 > 저시청률지역의 득표율 증가	
MBN	고시청률지역과 저시청률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고시청률지역과 저시청률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
JTBC	고시청률지역과 저시청률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고시청률지역의 득표율 증가 > 저시청률지역의 득표율 증가	진보편향 채널의 시청률과 보수정당 득표율 간에 양(+)적인 관계 (진보정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심층 보도하여, 오히려 보수정당 득표율에 긍정적 영향)

2) JTBC <뉴스9>의 앵커이자 JTBC 보도부문 사장인 손석희 사장은 세월호 사건 관련 보도에 많은 뉴스시간을 할당할 것을 밝혔으며, 2014년 4월 29일 닷새간의 팽목항 현지 방송을 마치면서 “진도 팽목항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도 거두지도 않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여가 지난 2014년 7월 말까지 JTBC <뉴스9>의 첫 뉴스보도는 세월호 사건 관련 보도였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종편채널 메인뉴스 시청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의 차이는 0.071%p(TV조선), 0.051%p(채널A), 0.162%p(JTBC)로 매우 작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TV조선, 채널A, JTBC 시청이 보수정당 득표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인 것이지, 종편채널 시청률이 보수정당 득표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TV조선, 채널A와 같은 채널을 많이 보는 지역에서 보수 정당이 당선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본 연구의 독립변인과 공분산분석에서 통제한 공변인들 외에 새누리당 득표율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종편 시청률이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에 적용한 변인 외에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변인으로 미디어 중에 지상파채널 시청률을 들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SNS, 신문 등 다른 미디어 이용도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찾아내어 분석에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편 4개사의 메인뉴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각 채널의 모든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정당 득표율 변화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기 못한 한계가 있었다. 즉 종편의 시사프로그램이나 다른 시간대의 뉴스를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 나타난 각 종편 메인뉴스 시청률과 정당 득표율 변화 간의 관계만을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메인뉴스뿐만 아니라 시사프로그램과 같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자와 패널들이 발언하는 프로그램들도 분석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1] 임정수, “새로운 오락 포맷은 ‘눈길’ 선정적 편향

보도는 ‘눈살’: 종편 2년의 성과와 방송계 지형변화,” 신문과 방송, 제516호, pp.23-26, 2013.

[2] 홍성일, “뉴스 대중화에 선도했지만 품격은 떨어뜨려: 종편 저널리즘,” 신문과 방송, 제516호, pp.31-34, 2013.

[3] 윤홍근, “종합편성채널의 브랜드 정체성과 브랜드 체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161-171, 2014.

[4] 원희영, 윤석민,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메인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9권, 제1호, pp.117-148, 2015.

[5] 이승엽, 양기문, 이상우, “종합편성채널의 정치적 편향성 분석: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1권, 제1호, pp.149-183, 2017.

[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02324335&code=9407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02324335&code=940705), 2013.11.20.

[7] 이준웅, “언론 매체 이용 및 해석적 틀이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48권, 제1호, pp.28-56, 2004.

[8] A. Diddi, F. Fico, and G. A. Zeldes, “Partisan balance and bias in TV network coverage of the 2000, 2004, and 2008 President election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58, No.2, pp.161-178, 2014.

[9] G. A. Zeldes, F. Fico, S. Carpenter, and A. Diddi, “Partisan balance and bias in network coverage of the 2000 and 2004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52, No.4, pp.563-580, 2008.

[10] S. Della Vigna and E. Kaplan, “The Fox News effects: Media bias and vot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22, No.3, pp.1187-1234, 2007.

[11] 차영란, “6.2 지방선거를 통해 본 유권자들의 정보채널 이용 행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pp.145-156, 2011.

[12] 최선규, 유수정, 양성은, “뉴스 시장의 경쟁과 미디어 편향성: 취재원 인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pp.69-92, 2012.

[13] 조은영, 유세경, “종합편성 채널 도입과 방송 뉴스 보도의 다양성: 철도노조파업 이슈에 대한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보도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3호, pp.433-461, 2014.

[14] 구교태, “한국 방송의 선거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제8권, 제1호, pp.5-38, 2008.

[15] 권혁남, “텔레비전의 15 대, 16 대 대통령선거 보도 비교 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제12호, pp.45-91, 2009.

[16] 노동렬, “신문의 선거 보도행태와 사진이미지 활용: 5대 중앙일간지의 19대 총선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8호, pp.157-166, 2012.

[17] T. Groseclose and J. Milyo, “A measure of media bia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20, No.4, pp.1191-1237, 2005.

[18] F. Fico, G. A. Zeldes, S. Carpenter, and A. Diddi, “Broadcast and cable network news coverage of 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An assessment of partisan and structural imbalance,” *Mass Communication & Society*, Vol.11, No.3, pp.319-339, 2008.

[19] 강형구, 정일권, 김지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TV 뉴스보도 유형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9권, 제1호, pp.102-133, 2008.

[20] 구교태, 김관규, 이준웅, “선거방송토론의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2호, pp.203-225, 2007.

[21] 나은경, 이강형, 김현석, “‘이게 다 노무현 때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사회 정서적 근원과 미디어 이용 및 대화 요인,”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4호, pp.299-323, 2008

[22] 반현, 최원석, 신성혜, “유권자의 투표 선택과 뉴

스 미디어의 집화효과,” 한국방송학보, 제18권, 제4호, pp.398-443, 2004.

[23] 김연중, “17대 대선 합동선거방송토론회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효과,” 한국소통학회, 제9호, pp.167-206, 2008.

[24] 강경태, “경제문제와 국가안보 요인의 호주 정당 지지도에 미친 효과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pp.137-156, 2006.

[25] 김미라, “종합편성채널의 초기 편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2호, pp.145-169, 2004.

[26] 최세경, “종합편성채널의 편성전략, 장르 다양성 그리고 시청 성과,” KBS 방송문화연구소, 제24권, 제1호, pp.75-109, 2012.

저 자 소개

이 승 엽(Seung Yeop Lee)

정회원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공학사)
- 2005년 2월 :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공학석사)
- 2017년 2월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팀장 <관심분야> : 방송, 소셜미디어, OTT

이 상 우(Sang Woo Lee)

정회원



- 1992년 : 연세대학교 화학과(학사)
- 1994년 : 연세대학교 화학과(석사)
- 1997년 : Telecommunic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석사)
- 2002년 : Mass Communication, Indiana University(박사)

• 2002년 ~ 2008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 2008년 ~ 현재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